中國語文宣教會報 제5호
1990.4

## 《聖句》

耶穌對他說，因看見了我才信，那沒有看見就信的有福了。

(約翰福音 21: 29)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순 서

1. 중국방문 보고 ( 한국외대 이영구 교수)
2. 기독교가 중국에 있어서 역대로 선교한 방법
3. 중국교회약사
4. 사할린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노라
5. 공산권 선교회를 찾아서(중국복음선교회 인터뷰 내용 전문)
6. 회계보고 및 후원 상황
7. 회원 동정
8. 알림 사항
9. 기도제목

☞ 110-290
종로구 인사동 243번지 명휘원 3층 ☎ 720 -4312

# 중국방문 보고

이영구 교수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

본인은 중국 에스페란트어협회 초청으로 에스페란트어 정보수집과 동북3성의 중국어 교학상태 조사를 목적으로 북경을 비롯하여 연길, 용정등을 방문했다. 중국에서도 에스페란트어는 세계어로 인정을 받아 방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화에 호응하려는 의도아래 정부나 민간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편으로 북경과 길림성(연변)의 연길시를 방문하여 중국 기독교 현황을 살피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북경대학은 중국의 심장부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지식인이나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인민대학과 북경외국어학원도 개혁과 개방을 바라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후 종교의 자유가 금지 되었고 교회가 폐쇄된 이래 일반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회는 당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FAX등은 차상급책임자가 관리함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봉쇄하였다. 작년의 6월 시위이후 북경대학 1학년 학생 800명은 下放되고 학원내에서는 2,3,4, 학년 학생들만 볼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당원 십사를 통하여 공산당원의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고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출판사들을 재정리 하였다. 1980년 서방과의 개방을 시작한 이래 민주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국가 장래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의 대학교수들은 학원내의 夜警(순찰)을 돌면서 괴로워 하고 있었다.

이 곳에는 민주화가 필요한데, 특히 사상의 자유, 전파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북경의 삼자교회와 1982년에 제정된 19호 문서는 중국정부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에 선전하려는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마침 연길시의 어느 한인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1934년 김성호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는 문화혁명기간 동안 폐쇄되었다가 1981년 다시 문을 열었다. 2월 18일에 주일예배를 참석하였는데 함께 예배보던 사람들은 모두 400명 정도였다. 예배순서는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어느 장로님의 주관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고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저녁예배는 7시에서 8시 30분까지 드리고 있었으며 새벽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었다. 40만의 한인들이 중국인과 혼인하였으며 나머지 160만의 조선인이 있는 관계로 이곳에서는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마침 청년회가 조직된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참가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연변 영어회화 교수로 있는 미국교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천안문 사건이후 외국인들이 모두 중국을 떠나간 상태에서 각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착실하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 온 어느 한국인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소박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받은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기독교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생활습관을 따르는데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관계로 교통문제가 외국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음 목적지로 가는 교통편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통신문제 또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검열의 문제로 전화사용은 한시간을 기다리게 하거나 다음에 이용하라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가 일쑤이다. 위생적으로도 그들의 비위생적인 생활방식에 대해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치안문제인데 일류호텔인 장미호텔에서도 직원을 사칭한 부랑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밤중에 방값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의 방언을 잘 습득한다면 기독교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시키기 위한 접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각부모임 보고 및 안내

총무부 : 사할린 교포 선교관광 프로그램에 총무부가 참여하여 봉사하였고 그 후 4월 6일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회를 가졌읍니다.

연구부 : 중국교회약사에 관해서 2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였음. 현재 중국에서 오는 신문이나 잡지( 명보,90년대,중국과 교회등) 를 자료화하여 정리하고 있음.

정기간행부 : 5월호부터 회지가 격월간으로 발행될 예정이고 아울러 지면과 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알차게 편집하여 발행할 예정 입니다.

각부 모임 안내

총무부 : 월례회가 5월 7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임.

연구부 : 매주 2, 4째 금요일에 모임.

번역출판부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정기간행부 : 매달 10, 20일 오후 6시 30분 선교회 사무실에서 .

# 제 5장 기독교가 중국에 있어서 역대로 선교한 방법

※ 본고는 근간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 중국화보가운데 일부분을 안병국 형제님이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도구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가 중국에서 무리없이 선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역대 선교사들은 선교방법에 대해서 각종의 시도와 노력을 하였는데, 이 장에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종합 서술하려고 한다.

1) 의료를 통하여 선교사업을 하다

처음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의약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함으로서 전도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당나라 때의 景教教士인 崧一은 일찌기 그 의료 기술로서 선교의 수단을 삼았는데(주 117) , 청조에 이르러 더욱더 많은 현대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나 간호원들이 중국에 들어와, 의료활동을 통하여 선교를 하였다. 당시 유명한 선교사 의사로는 가장 먼저 중국에 와서 의료선교 사업에 종사했던 伯駕(Peter Parker) 가 있었고(주 118), 국부 손문의 스승인 嘉約翰(John Kerr), 康德黎(James Cantlie)( 주 119), 孟生(Patrick Manson)( 주 120),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葛理翰(Billy Graham) 의 장인인 鐘愛華( Nelson Bell)( 주 121), 대만대학 식물학과 棟慕華 노교수의 부친인 棟法醫師(George Fox Devol)(주122) 들은 모두 그 중에 뛰어난 성과가 있었던 분들이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만이라는 먼지역에서 의료사업에 많은 외국 선교사가 의사와 간호사의 신분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교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고 그 효과도 매우 눈부시다고 하겠다.

2) 문자를 통하여 선교사업을 하다

문자는 인류문화의 최대 특색으로서, 중국문화는 특히 문자의 전승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중국에서 선교를 함에 있어 처음부터 문자수단의 효과적인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당나라 경교도들이 문자면에서 성경번역 사업에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돈황동굴 지하로 부터 발견된 유물을 통하여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 공인되고 있다. 그들이 남겨놓은 經卷 예를 들어 一神論, 序聽迷詩所經, 大秦景教宣元至本經, 志玄安樂經, 大秦景教大聖通眞歸法讚, 大秦景教三威蒙度讚, 尊經등 모두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 123) 이 외에도, 당나라 돌비석등에도 많은 당시 교사 교도들이 문자로서 전도사업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大秦景教流行中國碑頌竝序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멀리 당조때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에

이미 다방면으로 문자를 선교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명나라에 이르러, 천주교 선교사들은 특별히 학술문화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문자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명말시기에 대대적으로 서양서적들이 천주교를 통하여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주 124) 초기 신자였던 중국인 예를 들어 徐光啓등은 모두 문자로서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주 125) 청 중엽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이후로 거슬러 내려가 최초의 선교사였던 마리손(Robert Morrison) 두번째 선교사였던 米憐(William Millne) 는 문자를 통한 선교사업을 극히 중시하여, 그들의 노력아래 최초의 완벽한 신구약 성경역본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또한 중국 최초의 民報와 기타 많은 문자 선교 간행물을 출판하였다. (주 126) 그 후로 유명한 선교사 예를 들어 林樂知(Young Allen) ,李提摩太(Timothy Richard), 丁韙良(William Martin), 傅蘭雅( John Fryer), 李修善(David Hill) 등이 모두 문자선교의 중심인물로서, 그들이 光學會 및 萬國公報상에 끼친 영향과 업적은 지금까지 중국근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주 127) 그러나 애석하게도 민국이후 기독교의 문자 선교사업은 영향력이 있는 중국계 신도와 교회의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시 많은 중국인 지식인들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중서양의 학문을 겸비한 관계로 중국의 결핍과 필요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지식인들은 그들의 문장을 통하여 신생의 중국을 향하여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복음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중국 기독교 전통의 문자 선교사업을 압도하고 말았다. (주 128) 중국의 선교운동사에 있어, 이것이 가장 원통하고 애석한 사건일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기독교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문자의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교육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하다

교육사업은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이 학생 인격의 형성, 사고방법의 훈련및 인생태도의 배양에 있어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멀리 원나라때에 孟德高維諾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아동교육 사업에 종사함으로서 후계자를 양성하려 하였다.(주 129) 명나라때에 중국에 온 耶蘇會士들은 모두 박식한 자들로서 지식전달을 통하여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그들이 학교를 창립하여 정규 교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주 130)기독교 신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자 馬理遜과 米憐등의 선구자들은 교육사업에 대해 매우 중시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도아래 英華書院은 먼저 馬六甲에서 기초를 닦으며 중국계 기독교인을 훈련시켰다. 당시 영화서원의 초기 학생으로는 예를 들어 梁發,何福堂, 王元深등이 모두 이후 중국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 131) 마리손이 세상을 떠난후에 그의 친구가 특별히 마리손 교육장학회를 설치하여 교육선교 사업을 계속 확대하였다. 특히 중국의 최초 유학생이었던 容宏은 마리손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였고, 거기에서 미국 耶魯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주 132) 아편전쟁후에는 선교사들이 중국에 오는 인원이 늘어나서 교육을 통하여 선교활동을 하던 사람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丁韙良이 同文館,京師大學堂에서(주 133), 狄考文(Calvin Mateer)가 山東文會館에서 과학교육을 확대하였고(주 134), 林樂知等은 중국 각지에서 신식 대학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이 설립한 학교로는 예를들어 聖約翰대학,嶺南대학, 東吳대학, 金陵대학등 문학 법학 정치 의학 농학등 방면의 인재양성에 있어 중대한 영향과 공헌을 하였다.(주 135) 민국이 성립된 이후로, 기독교는 비록 교육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만청시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중국의 문화전통, 사회습속, 정통 중국학술사상을 존중함으로서 선교의 전략으로 삼다

역대 선교사들은 중국의 사회습속, 문화, 전통을 매우 존중하였다. 그러나 동서양이 타고난 환경이나 표현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외형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조상을 추모하는 습관 방법등) 많은 연구자들은 기독교의 교의가 중국 전통문화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단지 서방전통주의자와 중국의 전통주의자 사이에 충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 136) 다음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로 부터 설명을 시도해 보겠다.

당나라의 경교도는 중국 불교사상을 받아들이고 배척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심지어 경교 경전 문물은 농후한 불교색채를 띠고 있다. 羅香林교수의 연구에 근거하면 呂朝와 당시의 경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주 137) 많은 문헌도 경교의 승려 예를 들어 景淨등이 불교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증명하고 있다.(주 138) 그러나 당나라 경교가 문화태도면이나 종교신앙면에서 그 본연의 입장과 교의를 포기함으로서 경교 본연의 특색을 전부 상실했기 때문에 경교는 한때 극성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주 139) 명말 청초에 이르러 중국에서 선교하던 천주교 예수회사들은 대부분 박식한 사람들로서 중국문화, 사회습속에 대해서 동정과 존경의 태도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利瑪竇가 중국에 올때 불교승려의 복장을 입었고 후에 유교복장으로 바꾸어 입었는데 ,그는 중국문화 정신에 대해 조예가 매우 깊었다. 그는 가능한한 중국의 습속과 타협함으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천주교의 다른 宗會인 道明會의 반대를 받아서 끝내 선교사상 유명한 禮儀의 논쟁을 야기시켰다.(주 140) 1807년 마리손이 중국에서 선교한 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복식등 생활의 세세한 예절에 대해 중국의 습속을 받아들였다. (주 141) 그러나 제사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는데 ,이 곤란한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자못 애석하기 그지 없다. 민국이래로, 청말의 拳亂및 민국십일년에 발생한 비기독교 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교회는 自立,自養,自傳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교회 토착화의 요구도 이론과 행동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이 있게 되었다. (주 142)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중심교의를 방해하지 않는 원칙아래 토착화운동을 진행할수 있느냐가 앞으로 교회가 선교함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5) 권세가와 결탁하고 정치 영향력을 사용하여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다

멀리 당나라 경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올 때에 당태종이 특별히 房玄齡을 파견하여 「사신들을 西郊로 보내 나가 맞아들이게 하였다 」. 그후에 「그 교지를 상세히 살펴서」 「천하에 널리 반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義寧坊에 寺度僧을 세우고 아울러 阿羅本을 鎭國大法王에 봉하였고,(주 143) 경교사에 五帝의 사진을 그려 모셔놓고 절에 들어갈 때 경배하게 하였다. 무측천이 정권을 잡고있던 시기에는 경교는 특별히 大周萬國頌德天樞를 건립하여 무후에게 아첨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경교도들이 정치 영향력을 사용한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주 144) 이외에도 당조시기의 경교도 예를 들어 伊斯,及烈등은 모두 정치에 참여하여 조정에 아부하려고 시도하였다. (주 145) 원나라 때에는 也里可溫이 몽고의 통치자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 거의 완전히 정치의 영향력을 힘입었다. (주 146) 명말 청초의 천주교 교사들은 정치 영향력의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였는데 ,이때 제왕의 인척이나 대신 반역자 외적들도 천주교 교사의 포섭대상이 되었다. (주 147) 英法연합군이 결성된 후에 선교활동이 조약의 보호를 받는 조항이 되어 선교활동은 더욱 정치외교의 보호아래 점차 전개되었다. (주 148) 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전문에서 토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6) 사회 복리 자선사업에 종사함으로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다

예수는 일찌기 「각성 각 고을을 다니셨고 각지를 돌면서 선한일을 행하셨다」(주 149) 결핍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 자연히 기독교의 선교방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역대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명령을 깨닫고 사랑을 통하여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다.

멀리 경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올 때에 당시의 교사들은 자선 구제사업을 널리 행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신도를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경교의 비문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재산을 나누어 주고 집에 쌓아놓지 않는다. 굶주린 자는 오게하여 먹이고, 추위에 떠는 자는 오게하여 입히고, 병든자는 치료하여 일으키고, 죽은자는 장사하여 편안하게 해준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당대의 경교도들이 이미 가난한자를 구제하고 고통받는 자를 구휼하는 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 150) 청말에 이르러 천주교와 기독교는 모두 자선 구제사업에 힘을 쏟았는데, 예를 들어 고아원이나 천연재해에 대한 구제사업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 151) 동시에 기독교는 사회의 좋지않은 습속 예를 들어 전족,아편등에 대해서도 분주히 돌아다니며 고칠것을 호소하였다. (주 152) 현재에 이르기까지 基督教展望會,기독교 아동복리 育幼恤孤事業, 기독교 마약 근절사업, 기독교 카운셀링 사업등이 여전히 대만이나 기타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항의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주 153)

### 7) 성직을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재각기 다른 전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또한 그 전공 전수케 함으로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한다

어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반드시 역량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야 비로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법이다. 동시에 전도자는 반드시 먼저 지역주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임을 얻어야 전하려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명청이후로 부터 많은 중국주재 선교사들이 풍부한 지식의 훈련을 받았고 아울러 특수한 전공을 발휘하여 선교를 하려고 하였다. 예를들어 초기의 천주교 교사인 湯若望,南懷仁등은 모두 과학자로서 천문학의 특수한 훈련을 받았고, 郎世寧은 회화 예술에 있어 동서양의 기법을 통달하는 경이적인 성취를 이룩한 것등이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주 154) 기독교에 있어서는 馬理遜,米憐,理雅各이 중국학술에 있어 조예가 깊었고, 伯駕,馬礼,孟生(Patric Manson)이 모두 의학방면에 전문가 였다. 丁韙良,林樂知,李提摩太등은 국제공법,세계역사등의 방면에 특수한 공헌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특수한 전공을 통해서 선교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외국교회가 그 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에 대해 비록 여러방면으로 조치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소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이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욱 애석한 점은 교회단체가 중국계 교회 종사자들을 훈련함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천주교는 원나라 때에 일찌기 孟德高維諾에 의해 아동 백오십명이 양육되어 중국 천주교 후계자를 양성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 비로서 첫번째 중국인 주교인 羅文藻가 나와서 사업을 대신 맡아보았다.

(주 155) 청초기는 선교가 금지된 시기로 주민들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여서 선교사들이 접촉한 자들은 대부분 중하층 인사가 많았다. 따라서 많은 초기 중국계 교회 종사자들은 출신성분이 낮았고 심지어 외국인의 종들도 있어 사람들에게 준 인상도 좋지가 않았고 본국과 외국인 전도자들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중국교회도 이러한 점을 점차 주의하게 되었는데,가령 홍콩의 중국신학연구원이나 대만의 중화복음신학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동시에 영성, 학식그리고 생명경력의 삼자를 모두 중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방침이 중국교회에 새로운 정예 사명자를 공급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8) 조직을 운용하고 선교회를 조직하여 전도목적을 달성하다

기독교가 해외선교에 열심을 내게 된것은 William Carey 이후로 부터 점차 시작되었는데,(주 156) 각 교파는 제각기 해외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선교사업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선교회를 통한 선교활동은 그 잘잘못을 확실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우리들은 선교회가 그 풍부한 재력과 엄밀한 조직을 동원하여 각지에서 계획적으로 확장사업을 전개하며 지교회를 건립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양에서 온 선교회는 역시 그 본국의 사회풍속 문화습관을 복음의 외피에 섞여 유입하게 하여 마침내 사람들에게 문화침략의 구실을 주게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동서양의 언어장애 때문에 서양의 선교사와 본토의 전도자사이에 오해가 심심지 않게 생겨낳고 심지어 심한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교회사이에 신학배경이 다르고 전도방법이 같지 않아서 피차간 이견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지어 경계를 나누고 각각 선교구역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주었으니 진실로 선교역사에 있어 불행한 사건에 속한다고 하겠다. 최근에 독립적인 지방교회가 날로 흥왕하여 선교회의 제약을 떠나 자립 자양 자전의 교회를 건립하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 158) 더우기 대륙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하교회는 절대로 선교회의 어떠한 지원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중국교회는 백여년동안의 의뢰습성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서 효과있게 사업을 전개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선교학자들이 한결같이 믿는 결론인 것이다.

9)대중매체를 사용하여 복음전파에 종사함으로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한다

오늘날은 대중매체의 시대로서 문자,방송,텔레비젼등의 전파도구는 사회의 모든 방면에 파고들어 오고 있다. 아울러 상인,정치,반신 무신론적인 사상 선전도 이미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소련은 매년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그 무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데에 미화 15억달라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상인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상품을 선전하는데 소비하는 비용은 액수면에서 더욱 천문학적이다. 현대인은 대중매체의 맹렬한 포위공격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회 전도사업도 만일 조기에 대중전파의 수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사업은 대중매체의 압력과 도전을 받아서 날로 위축되고 말 것이다.

10) 선교방법의 총론

이상에서 논한바로 부터 우리들은 역대 전도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11) 완전히 성령에 맡기는 전도방법

이파의 전도자들은 복음을 최대한 빠르고 널리 중국에 전하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전도회나 부흥회등을 사용한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만 하면 중국인들이 기독교로 귀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것에 기초를 둔 이 일파의 선교사 즉 내지회의 戴德生등은 선교할 때에 성경의 내용외에는 거의 다른 것들을 다루지 않았다. .

12) 중국인의 세속적인 마음을 개조하려는 선교방법에 힘을 쏟다.

이 일파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복이 기독교 도덕을 준수하거나 영적인 진리 문명에 속하는 곳에 임하며, 진보적인 축복도 과학측정이나 자연을 제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한편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지만 역시 자연계의 현상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고 믿고 있다. 이 일파는 명말 청초의 많은 천주교 교사및 청중엽이후의 丁韙良, 李提摩太, 林樂知등이 대표가 되고 있다. (주 159)

13) 공자와 그리스도

선교활동중에 「공자냐? 그리스도냐 ?」가 줄곧 선택하기 어려운 하나의 문제이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방법의 기본 구도가 「공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다」,따라서 그들은 중국문화와와는 물과 불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가능한한 배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파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마땅히 「공자에 그리스도를 결합하다」는 기본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종이후에 어떻게 더욱 광범위하게 기독교가 훌륭한 환경배경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선교사들 예를 들어 丁韙良등은 필생의 힘을 쏟아서 중국 전통문화와 기독교 신앙 및 실제로 진리와 어긋나는 부분의 재건작업에 종사하였다. 예를 들어 미신을 타파하고 부도덕한 사회습속과 부당한 사상방법을 타파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 일파의 선교사들은 전통의 중국문화에 대해 모든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독교의 이점을 서로 잘 조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문화와 관계된 것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파괴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160) 이 일파의 선교사들은 왕왕 중국 고서적에 대해 깊게 연구하면서 한편으로 교육을 강조하는데 더욱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중국인의 태도와 가치를 새로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이 선교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접적인 것으로 차라리 문자기록,교육사업,사회자선,혹은 대중전파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국인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무의식간에 적대감정이나 원한을 누그러 트리려고 하였다. 사실 이 방법은 근년이래로 선교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福音預工(Preevangelism)으로서 먼저 비신자 마음의 편견을 제거하여 좋은 심령의 토양을 준비하게 한 후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순조롭게 싹이 나고 성장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게하려는 것이다.

# 中國 敎會 略史

## 序論

중국 교회사를 살펴볼때 신도수의 증가는 매우 기쁜일이 아닐수 없지만 중국교회의 多事多難한 지난날을 돌이켜볼때 여간 마음아픈 일이 아니다. 중국 교회사에는 까닭을 이해하기 싶지 않은 두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의 傳來가 왜 帝國主義의 침략으로 인식되어 왔는가? 다른 하나는 「三自運動」이 왜 갑자기 형성되였는가이다.

1807년 모리슨이 중국에 온후부터 南京條約이 맺어지기전까지 중국은 대외적으로 줄곧 쇄국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기간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단지 손꼽아 볼 수 있을 정도였다.[1]

1842년 南京條約이 채결된 후 외국 선교사들은 중국 연안 5개 항구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전도가 허용되었다. 유럽과 미국 지부에서는 각각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 중에 테일러는 「中國 傳道會」에서 탈퇴하여 1865년에 中國內支會를 창립하였다.

天律(1858), 北京(1860)조약후 중국 선교 사업은 더욱 확장시기로 접어들었다. 외국 선교사외에도 중국인 전도사양성도 시작되었으며, 각 지방에도 선교회(佈道所)를 건립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 전도하는 사업이야 말로 중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교회와 선교회들은 1890년에 중국 제2차 전국 선교대회(1차1877)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전국에는 선교사 1296명과 1657명이 넘는 중국인 전도사들도 있었다.[2]

1890년부터 신해혁명 (1911)기간동안 중국인들은 국력이 날로 쇠약해짐에 따라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회의가 일었으며 심지어는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다. 반면에 서구문명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사상의 충격과 관념의 변화는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되었다.

東北, 河南, 河北, 山東, 山西는 물론 해안의 福州, 蘇州 上海등지의 교회까지 보편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특히 산지의 苗族은 집단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

더욱이 당시 서양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으로 「켐브리지의 7인」등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신학 교육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民國성립 이후, 기독교는 합법적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복음은 더욱 널리 활발하게 전해졌다. 신도들 또한 자신들의 선교책임을 의식하게 되어 自立,自養(자급의 의미이나 三自교회의 삼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단어를 그대로 씀;역주)의 교회를 건설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1911년부터 1919년은 중국교회의 자립운동이 활발했다. 華南에는 장로회의 自立·自養운동이 있었으며, 華中에는 中國耶蘇教自立會運動, 華北에는 中華基督教會의 자립운동이 있었다. 1918년 중국인 교회지도자들은 더욱 中華國內布道會를 발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인이 조직한 첫번째 선교회이기도 하다.

20년대,중국교회는 반기독교적애국주의와 공산주의로 인한 좌절을 겪게된다. 1921년, 중국공산당이 성립되고, 이어 국공합작과 혁명군의 북벌이 있게 된다. 反기독교운동의

---

1) 구쯔라프나 메더스트등으로 《中國與教會》 제22기 (1982 5-6) p.16참조

2)湯清 《중국기독교백년사》 道聲出版社 1987.10 初版 p. 549

전개는 교회의 전도확장사업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또한 자립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도 했다. 敬奠瀛이 창립한 耶蘇家庭, 王明道가 북경에서 성립한 基督徒會堂, 倪柝聲의 지도하에 있던 基督徒聚會所등이 그러하다.

교회는 비록 압력을 받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했다. 30년대 교회는 더욱 피차간에 단결합일하여 하나되자는 「本色運動(토착화를 의미하는듯;역주)」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自治, 自養, 自傳(三自)을 강조했다.

1936년부터 1949년의 기간은 비록 중일전쟁을 격어야 했으나 신도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56%의 증가율을 보여 1936년의 536,689명에서 1949년에는 834,909명으로 증가하였다.

1949년 중국교회는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든다. 自立,自養의 정신은 적지않은 중국신도들이 함께 인식하는 바이었다. 20,30년대부터 교회는 이미 서양의 색채를 벗어나려고 했으며, 서방교회의 종속물의 위치보다는 주체성있는 교회를 건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三自는 1951년에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기까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정부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독교단체를 처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여한 중국지도자는 「중국기독교 抗美援朝鮮의 三自革新委員會籌備委員會」를 만들어 吳耀宗이 주석이 된다. 곧이어 전국기독교는 고발운동을 전개하며 고발대상은 「제국주의」와 관련있는 중국서방교회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하직한 모리슨과 테일러도 고발대상이었다. 이때에 대부분의 서방선교사들은 강제로 중국을 떠나게 되었으며 서방교회와 관계없는 자립교회의 지도자 倪柝聲과 王明道등은 이어 투옥되었다.

1954년 7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성립되어 가입하지 않는 전도사들은 잡혀가게 된다.

「大躍進」시기,목회자들도 생산에 투입되어 전도사들은 태부족이었다. 1958년에 이르러 「교회대연합운동」의 명분하에 교회는 합병되고 예배당은 공장이나 창고로 변했다. 교회는 실로 유명무실해졌으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신도들은 가정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66년 문화혁명 폭발이후 三自의 활동조차 정지되었으며 책임자들은 마찬가지로 비판을 당하게 된다. 신도들은 집회를 가지려해도 암암리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환란중에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은 신앙을 외면하기도 했고,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찾게 되기도 했다. 표면적인 종교활동은 정지되었으나 신도들의 숫자는 도리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문혁 후 1979년이 되어서야 三自의 예배당은 다시 열렸다.

역사를 통해볼때 토착화라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구호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自治,自養, 自傳의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교회에 존재했었다.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와 험난한 가시밭과도 같은 개척시기를 경과한 후 복음은 비로소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중국 신도들은 이미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 아득한 1876년에도 중국인전도사 750명의 수는 당시 중국에 있던 서방선교사들 473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3] 서방선교사들은 더욱 많

3) 前揭書 p 550

은 중국인전도사들의 배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동시에 장차 선교의 책임을 중국신도에게 돌려주어 담당하게 되기를 갈망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느정도는 중국과 외국의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길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그림자를 떨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반기독교운동」의 질책, 반대 ,의심등으로 말미암아 중국교회는 더 자립의 길을 걷겠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일전쟁, 국공내전과 정치의 변동으로 교회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50년대로 접어들어 교회가 원래 제창했던 自立,自養은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이용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박해와 상처를 받게 되었다.

백여년동안, 중국의 교회는 戰亂, 불안정, 공격, 핍박등을 거쳤으나 신도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약간의 감소도 없었다.복음의 씨앗은 이미 중국의 대지에 뿌려져 별로 큰 걸림돌없이 30배, 60배,100배의 훌륭한 열매를 거둬 들이게 되었다.

《研究部 이의선자매 번역》

## 사할린의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노라.

주님의 은혜와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3월27일 부터 3월29일 까지 2박3일간 48년만에 고국을 방문하신 사할린 교포 아홉분을 섬긴 선교관광을 마쳤다. 공산권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있으나 중국어문선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중국인에 대한 직접선교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한해동안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하루에 약 20-30명의 공산권 교포가 모국을 방문 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만약 그 중의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댓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할린 교포 선교관광은 많은 것을 생각케해준 값진 기회였다.

지난 3월 23일 아는 집사님에게서 '사할린동포 선교관광'을 제의 받았다.'중국을 주께로'라는 주제 아래에 중국을 복음사역의 대상으로 하는 우리인지라 소련 사할린교포를 대상으로한 선교 관광이라니 약간은 주저되는 바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국경이 있을손가? 더구나 그들이 다름아닌 우리의 동포요 또한 중국과 같은 공산권에서 오셨음에랴. 때문에 대표간사님과 많은 회원들은 오히려 직접 선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선교대상을 몸소 데려와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할 뿐이였다. 일이 시작되자 총무간사를 비롯한 회원들이 기도로 선교방법에 대해 준비에 들어갔다.

26일부터 우리의 초청편지를 받으신 교포분들의 전화가 밀어 닥치자 선교회는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3월 27일 오후 5시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같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셨다.가슴에 적십자사에서 달아준 '사할린교포모국방문단'이라는 명찰을 보고서야 정말 귀한 영혼들이 찾아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5시 이전에 가족 친지와 함께 찾아온 분들과 뒤늦게 도착하실 분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국내선교영화 '낮은데로임하소서' VTR 을 감상하였다. 처음 대하는 분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중에는 이동화 간사와 이름이 같은 할아버지 한분이 계셔서 이간사님이 다가가서 "할아버지, 저는 동녁東 평화和字 이동화입니다."라고 말해 주위의 시선을 모았다. 그분들에게 중국어문선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막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는 强愎해진 우리주위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하여 복음을 전하면 옥토에 씨가 뿌려진 것 같아서 금방 고운 싹이 솟아날 듯 했다.

8시쯤 되어서 태능에서 한국의 맛이 풍기는 갈비로 저녁을 먹고 숙소인 여전도회관으로 향했다. 숙소를 여전도회관으로 정했던 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믿는 이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해서 였다. 실제로 기도회나 다른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 엘리베이터 안이나 로비에서 만나면 사랑을 담은 따뜻한 인사를 통해 주님안의 형제애를 보여줌으로써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큰 선교가 되었다. 처음에는 왜 ? 이들이 우리에게 이토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혹시나 우리 신상에 이상이 있지나 아니할까? 하는 생각때문인지 다소 긴장돼 보이기도 하였다.

28일아침 봄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비가 내렸다. 차량문제 때문에 염려했으나 인천할렐루야교회 산하의 시온산 기도원 대형버스가 여전도회관 앞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려주니 감사할 따름이였다.더욱이 운전하시는 집사님의 시종일관 섬기는 자세는 먼저 나선 우리 선교회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남음이 있었다.오전 10시,극동방송국에 들려 간단한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책과 라디오를 선사받고 방송국 내부시설과 방송현장을 견학한 후 점심도 대접받았다.

12시, 다음장소인 여의도 한강유람선선착장으로 향하는 길에 국회의사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했다. 이슬비내리는 한강 유람선안에는 마침 경북상주에서 상경한 부인들이 동승하게 되었는데 그들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에게 상주아리랑을 권했더니 즉석에서 흥이 돋아 몇몇 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스러운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 대한 아픔을 느낄수 있었다.

잠실 유람선 선착장에서 합류한 어린이전도협회의 손화자선생이 간단한 찬송부르기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롬3:27)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 하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고 피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 영영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좋으신 예수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렵니까?"라는 영접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줄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나오면 「아멘」 하셨다.

우리 기도중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하면 그들중 대다수가 기도가 끝난 줄 알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기도에 다시 머리를 숙이는 일도 있었다. 수요예배를 드릴 교회를 정해놓고 저녁식사 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선생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영광을 알려주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자 곧 그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할일에 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행1:8) 하신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형제.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임을 말씀드렸다.

수요예배 저녁 광고시간에 우리 일행을 환영하여 주었지만 마침 목회자 전도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어서 이해하기 쉬운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기대했으나 목회자의 강의시간 같아서 아쉬었다.

저녁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교통난을 실감하며 늦게돌아 왔다. 하루의 여정을 담은 VTR을 보고 늦은 시간이지만 남정옥,남정혼남매가 특송을 위하여 찾아왔다. 찬송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해 모두들 손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주여! 오늘밤이 지나면 이분들은 사할린으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의 일생에서 우리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밤 이시간이 진정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밤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후 할머니 몇 분께서는 자식들에게 줄 우리말 책들을 부탁하시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은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었다. 친척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우시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만큼 우리사이가 가까워 진 것이다.

28일 아침 밤사이 내린비로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인왕산과 창경궁은 맑고 깨끗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난 후 공항선교회 전 집사님 일행이 오셨다. 본주한 정리를 마치고 떠나기전 예배를 드렸다. 오전의 촉박한 시간 가운데 경복궁을 관람하고 점심장소로 향했다. 뷔페로 준비한 점심이 처음에는 어색해들 하였으나 형제들의 왕성한 식욕으로 그분들도 부담없이 두세 접시를 쉽게 비우는 식욕을 보여주셨다.

이제는 몇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동대문시장으로 향했다.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서 입으시라고 옷 한벌씩을 드리기도하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은 캔 쥬스를 사다 주기도 했다. 특히 이분들에게 관심있는 것은 돌아가 손자손녀에게 나누워줄 학용품,껌등을 골고루 준비 하셨다.

우리일행은 여전도회관에서 숙박비를 할인해 주신것으로 그분들에게 문구류를 선물해드리기로 했다. 일행중 몇이 준비하는 동안 공항선교회 회원들께서 복음을 열열히 전하시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쉽지만 모셔다 드려야 할 엠버서더호텔로 향했다. 거북이걸음을 하는 차안에서 찬양과 말씀을 전하고 있을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되었다.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의 유도성 질문도 없었는데 이분들 중 최고령자이신 김**할아버지와 이**할아버지는 그곳에 돌아가시거든 예수님 말씀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느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차안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처음에는 부족한 예산과 일꾼으로 인한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후하게 채우시는 주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급해주셨다. 형제자매님을 통해서도 공급해주시고 경복궁에서처럼 면제라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했으며 자원봉사자를 많이 보내시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였다. 이 일에 함께 한 방송통신대학 중국어성경반의 박지석회장님과 여러회원들은 거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섬겼으며 어린이전도협회 형제자매들은 사랑이 넘치는 프로그램들로 섬겼고, 여전도회관측은 비용할인을 통해서 섬겼다.우리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여 일하게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많은 선교회와 형제자매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어찌 이 어려운 일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 글을 적어내려가려니 많은 고마운 분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극동방송국, 어린이전도협회, 중국어성경반, 땅끝전도단, 공항선교회, 여전도회관, 경복궁관리소, 사랑의교회, 박지석회장과 박지화전도사님 및 기타 많은 분들이…

( 정리;박혜영 김영석)

# 공산권선교회를 찾아서

## 중국어문선교회(中國語文宣敎會)

함태경

종로2가 YMCA 뒷편 명휘원 3층, 중국선교에 대한 비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국선교단체중 막내동이(?) 「중국어문선교회」(中國語文宣敎會)가 위치하고 있다. '중국을 주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해 10월 30일 경희대 시내한방병원에서 태동한 동선교회는 짧은 연혁에도 불구, 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그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88년 9월 3일 박성주 교수(현 중국어문선교회 대표)와 뜻을 같이 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 '89년 5월 20일에는 동회의 창립을 결의했고 1·2차발기인모임끝에 믿음의 항진을 하게 됐다.

동선교회의 총무인 이동화씨(33)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긴기간의 훈련과정이 지난후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83년 대만에서 귀국, 방송통신대학 초대중문과 담당교수로 재직하시던 박성주 교수님이 1년여 기도를 준비해 방송통신대 학생중심으로 중국어성경공부모임을 인도하신 것이 동선교회의 모체가 됐다"면서 "성경공부를 통해 축적된 중국선교에 대한 에네르기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발전, 선교회 창립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3개월동안 동선교회의 활동은 "주역보다는 조역을 담당하겠다"는 소극적(?)사역관과는 달리 가히 역동적으로 이영구(외대), 정일(목포대), 유성준(외대), 박운석(영남대 중문과)교수들과 시간강사, 중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주로 회원이 구성되었기에 활동을 어학과 문서중심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편. 또한 연구부, 교육부, 번역출판부, 정기간행부, 총무부등의 부서활동을 활성화시켜 정기세미나, 각종문서 번역출판이 이르기까지 중국선교에 대한 구체적 자료보급과 선교대책을 보완하는데 주력하려 한다.

그중 번역출판부의 활동은 가히 고무적인 실정. 15명의 부회원들이 선교자료의 번역뿐만 아니라 번역·출판요원양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중국기독교 백년사》를 2월까지 번역출판하려고 하며 앞으로 대만에서 출간된바 있는《기독교와 중국》을 한역하여 화보집으로 낼 계획이다. 4·5월경에는 중국의 종교정책을 포함하고 있는《China Mission Handbook》을 편역하는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번역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중국선교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동선교회는 선교자료번역은 물론 중국 선교현황연구, 선교전략연구 등에서 축적된 연구능력을 점진적으로 배가시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선교학을 정착시키는 연구소의 성격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초적인 단계로 정기월례선교세미나를 기획, 개최하여 선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연구부의 활동이 주목이 된다. 특히 2월부터 개강된 중국어강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선교에 대한 열의를 확산하며 선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편 동선교회가 이미 세차례에 걸쳐 연 정기세미나는 그 주제에서 중국선교에 임하는 한국인과 한국교계에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인상.「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종교관」(우심화 목사·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수)의 제1차세미나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김상현집사(철원길병원장)의 「중국병원선교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월 29일에는「한중교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무역협회 이은호씨(특수지역과장)의 세미나가 있었다.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중국어문선교회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의 집합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많지 않은 전문선교단체중 문서중심선교의지를 다듬어가는 중국어문선교회의 화이팅이 기대된다.

# 3월예산사역내용

| 수 입 | | 지 출 | |
|---|---|---|---|
| 이 월 | 571,900 | 임 대 료 | 300,000 |
| 후 원 금 | 1,059,000 | 사 례 비(2명) | 300,000 |
| 교 재 판 매 | 5,000 | 강사료(2,3월) | 60,000 |
| | | 교재구입(초급중국어) | 51,000 |
| | | 도시구입 | 71,000 |
| | | 컴퓨터 용지 | 30,000 |
| | | 컴퓨터 봉투 | 281,000 |
| | | 회 지 | 25,000 |
| | | 선교회용지 및 안내지 | 36,000 |
| | | 간 판 | 25,000 |
| | | 연 료 비 | 22,200 |
| | | 우송료(회지,안내장...) | 36,430 |
| | | 식 대 (번역자) | 43,500 |
| | | 수리비 및 전기선 | 7,500 |
| | | 사 무 비 | 11,300 |
| | | 합 계 ₩ | 1,299,930 |
| | | 잔 액 ₩ | 335,970 |
| 총 계 | ₩ 1,635,900 | ₩ | 1,635,900 |

## ☆ 후 원 자 상 황 ( 3 月 ) ☆

구규식, 고희정, 김한성, 김은숙, 김승원, 김신봉, 김근수(나미옥), 김구성, 김의득, 김영석, 김순임, 김성순,남궁양석, 문정희(윤종원), 박성주, 빈미정, 박지석,박동화, 박정숙, 박지화, 박혜영, 박영헌, 박미라, 박종표, 윤연자, 윤윤순,양기웅, 양혜선, 이동화, 이지순, 이영구, 이의선, 이금복, 이성철, 이은자,이영희, 이덕형, 임종명, 정인숙, 장경순, 정재순, 서 진, 서옥희, 석귀희,신길순, 천윤철

단체 : 동숭교회, 충정교회

무명 : 용전동, 무명

☆ 선교중국어강좌 강사료 보조금(2,3월) ₩ 120,000

# 알림사항

1. 제 6차 정기 세미나가 4월 30일(월) 오후 7시 본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중국 요녕성 철영시 조선족교회 전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인철 전도사님을 모시고 "중국의 조선족 교회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제 5차 정기세미나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에 이영구 회원을 모시고 "최근 대륙기행"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읍니다.

3. 지난 3월 27일에서 29일까지 사할린에서 오신 고국 동포님을 모시고 선교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4. 월례 철야기도회가 지난달 26일 삼각산 감람산기도원에서 13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읍니다.

5. 4월달 부터 월례 철야기도회가 정기세미나가 열리는 날 밤 10시부터 여전도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6. 4월 1일 개강할 예정이던 제 2기 선교중국어 강좌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5월 1일로 연기되었읍니다.

7. 박지석 회원의 모친 고희연이 4월 15일 원앙회관에서 열렸읍니다.

## 회 원 동 정

1. 박성주 대표간사께서 4월 10일 2주 예정으로 대륙에 선교여행을 떠나셨읍니다.

2. 강갑숙 회원께서 4월 8일 화촉을 밝혔읍니다.

## 기 도 제 목

1. 현재 작업중인 번역서들을 출판할 출판사 선정을 위해서

2.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인 및 중국교포들을 위한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선교 프로그램이 계발될수 있도록

3. 방통대와 서울대에 이어 이화여대에도 중국어 성경반을 만들려고 계획중인데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4. 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서(200만원) 또 10월 이후의 새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5. 박성주 선생님의 중국선교 여행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